

# 광주·전남,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최우수 쾌거

전남, 광역자치단체 종합 1위  
광주, 특광역시 중 최고 점수  
전남 5년·광주 7년 연속 A급  
나란히 우수 시·도 상패 수상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해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우수 시·도 상패를 동반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4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종합 성과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나란히 A등급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우수 시·도 상패를 수상했고, 국비 2억여원을 사업비로 지원받았다.

종합 성과는 △사업 평가(50%) △현장 평가(30%) △정책 반영 평가(15%) △행정 평가(10%) △위원회 평가(5%) 등을 종합해 평가된다. 세부적으로는 사업별 성과 지표와 고객 모니터링 및 만족도, 자체 예산 확보 노력, 지적 사항 개선 노력,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사례, 체육시설 건립 노력, 각종 수상 등이다.

평가 점수에서 전남도는 102.44점을 받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에 올랐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2024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종합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우수 시·도 상패를 수상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고, 5년 연속 A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는 97.72점으로 전남도와 충남도(102.33점)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3위로 특광역시 중에는 1위를 차지했고, 7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전남도와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2개 시·군 장애인체육회와 적극적인 협업을 실시했으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실제로 190개소의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을 지원하고 43명의 생활체육지

도자를 배치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에는 1만여명이 참여했다. 또 공공스포츠클럽과 전남도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운영했고, 여수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우수체육시설로도 선정됐다.

김영록 전남도장애인체육회장(전남도지사)은 “현장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저변 확대를 위해 끈기를 갖고 노력한 도민들 덕분에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전국 1위의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200만 도민들과 함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2024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종합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우수 시·도 상패를 수상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시와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5개 구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지역의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와 공공스포츠클럽, 동계 스포츠 캠프 운영과 장애인 생활체육 어울림 대회와 동호인 대회를 지원했다.

특히 생활체육 교실 등록 인구 증가와 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회에 대한 균형 지원, 참가자 만족도 등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으면서 최고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고희숙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팀 대리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을 수상하는 값진 성과도 이뤘다. 고 대리는 지난해 통합체육수업 교실 운영 우수 사례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우수 담당자로 선정됐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우리 시와 5개 구 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따른 성과”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박태정 제3대 광주시스쿼시연맹회장 당선

박태정(사진) ㈜삼원건축자재 대표가 통합 제3대 광주시스쿼시연맹 회장에 당선됐다.

광주시스쿼시연맹 선거운영위원회는 16일 광주시체육회관내 광주시스쿼시연맹 사무실에서 통합 3대 광주시스쿼시연맹 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박태정 후보에 대한 적격심사를 벌인 결과 임원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박 당선인은 광주시체육회의 인준을 거쳐 오는 2029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4년 동안 연맹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박 당선인은 ㈜삼원건축자재 대표로 활동하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광주시스쿼시연맹과 인연을 맺었다.

2021년부터 광주시스쿼시연맹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스쿼시 저변 확대와 선수



경기력 향상에 기여했으며, 엘리트선수와 동호인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박 당선인은 “유소년 스쿼시 영재를 발굴,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부터 소년체전 정식종목으로 포함된 스쿼시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연맹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나아가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다양한 대회를 개최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스쿼시가 남녀노소 세대를 넘어 누구나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점프슛 광주시공사 여자핸드볼팀 김금순이 지난 15일 대구 달서구 계명문화대 수련관에서 열린 인천시청과 신한 SOL Pay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4차전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시공사는 이날 인천시청에 21-24로 저 시즌 첫 연패를 기록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 최철원 제3대 광주시승마협회장 당선

최철원(사진) 인원산업(주) 대표이사가 제3대 광주시승마협회장에 당선됐다.

기호 1번 최철원 대표이사는 16일 광주시승마협회 사무실에서 경선으로 치러진 제3대 광주시승마협회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2번 유형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승마 동호인으로 꾸준히 활동해 온 최 당선인은 ‘승마의 변화, 같이 만들어갑시다’를 슬로건으로 ‘화합과 소통으로 승마인 모두가 하나가 돼 광주 승마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2004년 승마와 처음 인연을 맺은 최 당선인은 워블러드와 루시타노를 자마로 두고 해남지구력대회 10km에 출전해 1등, 장애물코스 출전해 무감점 원주, 익산 지구력 대회 20km에 출전하는 등 열정적인 승마인의 삶을 살고 있다. 최동환 기자



최 당선인은 당선 공약으로 △협회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집행부 활성화 및 재정확충을 위한 드림팀 구성 △연주승마장 시설 개선 △언론홍보를 통한 스폰서 유치 △광주시승마협회 홈페이지 활성화 등을 내걸었다.

최 당선인은 “말띠에 맞게 왕성한 활동으로 협회를 이끌어가겠다. 광주승마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이 당근과 채찍으로 응원해주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과 승마의 애정을 이끌어내고 선도할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연패 도전’ 호랑이 군단, 미국·일본서 담금질

어바인·오키나와서 스프링 캠프  
선수단 美 왕복 비즈니스석 탑승



‘디펜딩 챔피언’ 호랑이 군단이 미국 어바인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 캠프에 돌입한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는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더해져 KBO 리그 연패 도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KIA 타이거즈는 오는 22-23일 선수단을 두 조로 나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차 스프링 캠프가 진행되는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16일 밝혔다. KIA 구단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지원으로 전원이비

즈니스석으로 미국 왕복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선수단을 두 조로 분배했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는 이범호 감독과 손승락 수석 코치를 비롯한 코칭스태프 22명과 주장 나성범을 비롯한 선수 38명 등 총 60명이 참가한다. 투수 18명과 포수 3명, 내야수 10명, 외야수 7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신인 중에는 투수 김태형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KIA 선수단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그레이트 파크 베이스볼 컴플렉스를 베이스캠프로 3일 훈련과 1일 휴식 체제로 체력 훈련과 기술 훈련, 전술 훈련 위주로 1차 스프링 캠프를 소화한다. 이어 다음 달 18~20일 미국에서 한국을

거쳐 다시 일본으로 출국한 뒤 다음 달 21일부터 3월4일까지 킨 구장을 베이스캠프로 다섯 차례 연습경기를 치르는 등 본격적인 실전 체제로 2차 스프링 캠프에 돌입한다.

연습경기는 다음 달 22일 일본프로야구(NPB) 히로시마 도요 카프를 시작으로 25일 한화이글스, 27일 LG트윈스, 3월2일 삼성라이온즈, 3일 KT위즈를 상대로 열린다.

KIA 타이거즈 관계자는 “모기업의 지원이 선수단 사기 진작은 물론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 최소화하고 빠른 시차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